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과 쉬운 문어체의 의의*

김 혜 영**

<目次>

| | |
|-------------------------------|---------------------------------|
| I. 서론 | 1. 중국어 문체 분류의 세분화 |
| II. 중국어 성경 번역서의 문체 변화 | 2. 쉬운 문어체의 출현과 쇠퇴 |
| III. 성경 번역에 적합한 중국어 문체의 모색 과정 | 3. 구어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화체 번역서의 지위 확립 |
| | IV. 결론 |

I. 서론

본 논문은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서를 통해 선교사들의 당시 중국 사회의 언문불일치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중국어 성경 번역에 가장 적합한 문체를 모색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교사들은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을 위해 중국어를 습득하고 당시 중국사회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성경번역은 선교사들에게 중대한 임무였으며 성경이 중국인들에게 읽혀지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중국어 언어

* 본 논문은 2017년 6월 17일 계명대학교에서 개최된 연합학술회의, 2017년 10월 21일 중국학연구회에 의해 개최된 제105차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 토론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지적, 고견을 수용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언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성경 번역서는 선교사들의 중국어 인식 양상뿐만 아니라 근대시기 중국의 언어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연구가치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중국어 연구 자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서양인들의 중국어 인식 과정 및 서양 중국학의 발달을 고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저서에 기록된 중국어를 통해 당시 중국어의 양상을 고찰하기도 한다.¹⁾ 이에 비해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 연구로는 이수연(2013)의 박사 학위 논문 《聖經中譯研究》에서 중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이환진(2011, 2012s, 2015)²⁾는 대표본, 브리지만-킬벗슨역, 웨레쉴브스키역 성경의 번역상의 특징을 고찰했으며 황지연(2013)은 《화합본》을 통해 성경번역과 백화문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일부 중국어 성경 번역서가 소개되었으며 종교학, 번역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다수이다.

국외 연구의 예로 Thor Strandenaes(1987)는 1814년에서 1984년까지 다섯 가지 번역서, 《모리슨본》, 《대표본》, 《관화체 화합본》, 《프란치스카눔 성경연구소본》, 《현대 중문 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번역 원리를 밝혔다. 각각의 출간 배경, 번역문의 문체적, 어휘적,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밝혔으며 특히 가톨릭 선교사의 번역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Jost Oliver Zetzsche(1999)은 중국어 성경 번역사를 개괄했으며 특히 선교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

- 1) 서양인들의 중국어 연구 자료에 대한 관련 연구는 줄고 김혜영, 〈Joseph Edkins의 중국어 연구에 대한 기초적 고찰〉, 한국중국어문학회, 중국문학 89집, 2016.의 서론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 2) 〈웨레쉴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28, 2011.4, 35-57, 〈한문성경 『브리지만-킬벗슨역』(1864)의 번역 특징: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세계 73, 2012.3, 7-45,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전도서를 중심으로〉,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30, 2012.4, 25-44, 〈한문성경 『대표본』(1854)의 동양 고전 읽기 - 잠언의 경우〉,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36, 2015.4, 80-98.

으로 각 번역서의 출현배경 및 특징을 면밀히 논하였다. 중국에서도 성경 번역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马红莉(2011)은 화합본 성경의 각 문체의 특징을 고찰했으며 石晓岩(2015)는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이 근대시기 중국의 언어 개혁에 미친 영향력을 연구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를 발판 삼아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서의 문체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쉬운 문어체의 출현과 쇠퇴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언문불일치라는 언어적 현실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적응 양상을 고찰한다.

최초로 중국어 성경 완역서가 출현한 1820년대 무렵부터 현대 중국어 성경본의 초석이 된 《관화체 화합본》이 출간된 1920년대 까지를 연구범위로 삼는다.³⁾ 우선 2장에서는 중국어 성경 번역사의 흐름 안에서 번역서의 문체 변화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선교사들이 중국어 성경 번역에 적합한 문체를 모색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우선 선교사들의 문체 분류 방식과 채택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성경 번역사에서 19세기 후반 무렵 출현한 ‘쉬운 문어체’의 특징을 분석한다. 쉬운 문어체는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과정에 출현한 하나의 문체로 문어체보다는 읽기 쉽고 구어체보다는 격식을 갖춘 문체를 일컫는다. 쉬운 문어체가 출현하기까지의 배경 및 이 문체가 성경 번역사에서 쇠퇴하게 된 이유를 고찰한다. 셋째, 선교사들의 구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화체가 중국어 성경 번역서의 주요 문체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성경 번역서의 문체적 변화, 특징을 통해 중국의 언문불일치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 및 이와 같은 중국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 번역서를 위한 그들의 노력, 시도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 번역서의

3) 《관화체 화합본》은 출간 후 중국 교회에서 주요 성경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중국어 성경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후 《현대중문역본(現代中文譯本, Today's Chinese Version)》(1979)이 출간되었지만 《관화체 화합본》의 지위를 대체하지 못했으며 《관화체 화합본》은 1990년대까지 수정, 보완되어 출간된 바 있다. Jost Oliver Zetzsche(1999:343-350) 참조.

경우 예상 독자가 서양인이나 선교사가 아닌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어 및 중국의 언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성경 번역서를 통해 서양인들의 중국어, 당시 중국의 언어적 현실에 대한 인식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중국어 성경 번역서의 문체 변화

중국에서의 성격 번역은 일찍이 당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부가 번역되기도 하였다.⁴⁾ 성경이 완역된 것은 1820년대 무렵으로 Joshua Marshman(1768~1837)이 Joannes Lassar(?)와 함께 1822년에 《新舊遺詔全書》(‘마쉬맨본’이라고도 칭함)를 인도에서 출간하였다. 곧이어 Robert Morrison(1782~1834), William Milne(1785~1822)은 1823년에 《神天聖書》(‘모리슨본’이라고도 칭함)을 말라카에서 출간하였다. 두 권의 번역서는 최초로 중국어로 성경을 완역한 것이다. 이는 이후 번역서의 근거가 되어 중국어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⁵⁾ 두 번역서는 모두 문어체로 번역되었다.

이후 선교사들은 대개 문어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특히 《대표본(The Delegates' version, 代表本)》은 지극히 문어체적 특징을 가진다. 유럽의

4) Nestorius파의 Alopen는 당 태종 시기 경교(景教)를 중국에 소개했으며 일부 성경을 번역하였다. 가톨릭 선교사로는 Jean Basset(1622~1707)이 미사에 사용되는 전례 독서와 복음만을 번역한 바 있다. 이후 1820년대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다. 본 장에서는 문체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개신교 선교사들의 번역서 가운데 일부 번역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황지연(2013)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를 개괄하며 다양한 번역서를 소개하였다.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이후 번역서들은 대개 이에 근거했으며 두 번역서는 각각 수정되어 다시 출간되었다. Walter Henry Medhurst(1796~1857), Karl Gutzlaff(1803~1851), Elijah Coleman Bridgman(1801~1861)은 모리슨-밀레본을 수정했으며 Josiah Goddard(1813~1854), Edward Clemens Lord(1817~?), William Dean(1807~1895)은 마쉬맨본을 수정, 출간한 바 있다.

여러 나라, 분파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1843년 홍콩에 모여 보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번역서를 협동해서 출간하자는 뜻을 모았다. 메드허스트를 중심으로 John Stronach(1810~1888), 밀튼 등이 참여하여 1852년에 신약, 1854년에 구약을 완성하였다. 이 번역본은 중국의 문인 계층을 겨냥한 번역서로 고도의 문학적 문체가 특징이다. 메드허스트(1852:1)는 본 번역서를 읽는 사람은 이 번역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표준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고, 이를 훌륭한 중국 문학 작품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⁶⁾

《대표본》은 높이 평가되었으나 일반 독자들에게 어렵다는 평을 피할 수 없었다.⁷⁾ 따라서 보다 쉽게 널리 읽힐 수 있는 구어체⁸⁾, 쉬운 문어체의 성경 번역서가 출간된다. 메드허스트와 스트로나흐는 《대표본》을 남경어로 번역해서 1857년에 출간하였다. 이어서 Samuel Issac Joseph Schereschewsky(1831~1906), John Shaw Burdon(1827~1907), Henry Blodget(1825~1903), Joseph Edkins(1823~1905), Martin Schaub(1850~1900)의 북경어 번역본(1872)이 출간되었다. 쉘레체브스키와 John Griffith(1831~1912)는 쉬운 문어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는 문어체보다 쉬운 번역서를 출간하고자 한 시도 단계라 할 수 있다.

1890년, 개신교회 선교사 총회(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에서는 중국의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합본(Union version)을 기획한다. 화합본은 문어체(High Wenli, 深文理本), 쉬운 문어체(Easy Wenli, 淺文理本), 관화체(Mandarin, 官话本)로 구성된다. 《문어체 화합본》은 1907년에 신약이 번역되었으며 1919년에 구약까

6) Medhurst(1852:1)

7) Jost Oliver Zetzsche(1999:103).

8) 소위 구어체는 관화체, 표준어로서의 구어체를 일컫는다. 일찍이 1850년대 무렵부터 중국 여러 지역의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이 역시 구어체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대표본》 이후, 중국 전역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경을 추구하는 과정에 출현한 구어체 성경은 일종의 관화체로 기존의 방언에 의한 성경 번역서와 구분된다.

지 번역되어 함께 출판되었다.⁹⁾ 《관화체 화합본》의 경우 1905년에 신약, 1919년에 구약이 완성된다.¹⁰⁾ 한편 《쉬운 문어체 화합본》의 신약은 가장 먼저 1902년 출판되었으나 구약은 끝내 번역되지 못하였다.¹¹⁾ 쉬운 문어체 화합본은 완역되지 못하고 문어체본과 통합되어 결국 화합본은 문어체와 관화체 두 가지 문체로 완성된다. 《문어체 화합본》보다 《관화체 화합본》이 보다 널리 수용되었으며 이는 현재 중국어 성경의 기반이다.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바로 번역서의 문체 변화이다.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체를 매우 중시했으며 중국어 성경 번역사는 문어체와 구어체 가운데 어느 문체를 선택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메워져 있다. 이는 당시 중국의 구어체와 문어체가 불일치한 언어적 현실에서 기인한다. 즉 언문의 불일치로 번역서의 문체로 어떤 문체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예상 독자가 달리 상정되었다. 한편, 선교사들은 문인과 평민, 두 상이한 독자층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 선교사들은 성경을 상이한 문체로 여러 차례 출간하기도 했으며¹²⁾ 화합본이 세 가지 문체로 기획된 점 역시 이를 반영한다.

다음은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서로 적합한 문체를 모색하는 과정을 다음 세 가지, 중국어 문체 분류 방법과 채택, 쉬운 문어체의 출현과 쇠퇴, 그리고 구어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화체 성경이 우위를 점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9) John Chalmers(1825~1899), Davello Zelotes Sheffield(1814~1913) Martin Schaub(1850~1900), John Wherry(1837~1918), 에드킨스, 이후 Thomas W.pearce(1854~1938), Llewelyn Lloyd(1850~1931), Patrick J. Maclagan이 참여하였다.

10) Henry Boldget(1825~1903), George Sydney Owen, Goodrich, Hykes, Bramfit, Nevius, Calvin Wilson Mateer(1836~1908), John Campbell Gibson(1849~1919), Woods, Clarke이 참여하였다.

11) 쉬운 문어체 화합본의 번역작업에는 버든, 블로드켓, James R. Graves(1820~1893), Genhar, John Campbell Gibson(1849~1919)이 참여하였다.

12) 《대표본》 번역에 참여했던 메드허스트, 스트로나흐는 보다 쉽게 읽히는 성경을 출간하고자 이를 다시 남경어로 번역하였다.

Ⅲ. 성경 번역에 적합한 중국어 문체의 모색 과정

1. 선교사들의 중국어 문체 분류의 세분화

선교사들은 중국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 성경 번역서를 출간하기 위해 서 우선 중국어의 문체를 분류하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한 문체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예로 모리슨은 중국어의 문체를 ‘상’, ‘중’, ‘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¹³⁾ 그는 ‘상’의 문체는 사서오경에 사용된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문체를 가리키며 ‘하’의 문체는 《삼국연의》와 같이 완전한 구어체로 쓴 가벼운 소설의 문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의 문체가 위치하며 이를 성경 번역의 가장 적합한 문체로 간주하였다.

대표본 위원회는 중국어를 ‘앤티크체(antiquated style)’, ‘클래식체(classical styl)’, ‘자유 문체(free style)’, ‘대화체(conversational style)’ 네 가지 문체로 분류하였다.¹⁴⁾ ‘앤티크체’는 고대 경전에 사용되는 문체이며 ‘클래식체’는 경전의 주석에 사용된 문체이다. ‘자유 문체’는 일종의 소설체로 영어에서의 가벼운 읽을거리(light reading), 중국인들의 소설, 담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넷째, ‘대화체’는 구어체, 관화체이다. 대표본 위원회는 ‘클래식체’를 성경 번역의 가장 적합한 문체로 간주했으며 클래식체는 정확성, 타당성, 간결함이 특징이며 역사, 도덕적 철학, 정치, 경제, 지질, 자연 등과 관련한 글에서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스스로의 종교를 소개하고자 시도한 이들은 모두 교리를 논하거나 선교 할 때 이 문체를 선택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암기의 습관이 있는데 이 스타일로 작성된 것만을 암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표본 위

13) Milne(1820:89)

14) 메드허스트, 스트로나흐, 밀른이 1851년 3월 13일 런던선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성경 번역의 문체에 관련한 내용을 싣고 있다. Jost Oliver Zetzsche(1999:93) 참조.

원회는 클래식체를 번역서의 문체로 채택하였다. 《대표본》은 선교의 대상, 예상독자로 그들이 도덕학자, 윤리학자라 일컫는 지성인, 문인을 선택했으며 실제 그들이 읽었다.

화합본은 당시 성경 번역의 흐름에 의거하여 문어체, 쉬운 문어체, 관화체 세 가지 문체로 기획되었으며 각 문체의 번역서는 예상 독자 및 그 목표를 달리 한다.¹⁵⁾ 우선 《문어체 화합본》을 번역한 선교사들은 “쉽고 부드러운 운율적 문체로 교양 있는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에게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¹⁶⁾ 한편 《관화 화합본》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¹⁷⁾ 특히 《관화 화합본》의 번역에 참여했던 굿리치는 기존의 성경 번역이 지식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음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관화체는 비속된 언어, 하급의 중국인들이 거리에서 쓰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교단이 읽었을 때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는 “순결하고 뚜렷한 문체로 번역해야 하며 이것이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¹⁸⁾ 쉬운 문어체 번역에 참여했던 블로드젯은 문어체를 두

15) 화합본의 문체 분류는 원문의 번역방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띤다. 예를 들면 문어체의 경우, 직역을 피하고 히브리어, 그리스어의 단어를 동일한 중국어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번역이라고 간주하였다(Jost Oliver Zetzsche(1999:252-253) 즉 《문어체 화합본》은 보다 중국적인 번역에 중점을 두었으며 독자적인 번역을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쉬운 문어체 화합본》은 그리스어 성경, 즉 원문을 보다 충실히 번역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이는 문어체의 번역 원리와 상반된다.

16) 셰필드를 이어 《문어체 화합본》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던 웨리는 화합본의 문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The ideal translation will be easy, smooth, rhythmical style, a style equally acceptable to the cultured and uncultured reader.” Jost Oliver Zetzsche(1999:252-253) 참조.

17) 마티어는 《관화 화합본 신약》(1907)의 서문에서 이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 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2000, 31쪽 참조. (출처: 대한성서공회, www. bskorea.or.kr/about/worldtrans/chnbib)

18) Jost Oliver Zetzsche(1999:256-257)

가지로 계획할 것을 제안하며 쉬운 문어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쉬운 문어체는 가장 보편적인 판본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¹⁹⁾

이처럼 각 문체의 번역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은 문어체의 특징으로 간결함, 운율, 전고 사용을 꼽았다면 구어체의 특징으로는 하급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중국어의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와 그에 따라 예상 독자가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양자 가운데 하나의 문체를 선택하여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기 보다는 적합한 문체를 모색하여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어의 문체를 단순히 구어체와 문어체로 양분하지 않고 이를 보다 상세히 다양한 부류의 문체로 분류하였다. 모리슨은 ‘상’, ‘중’, ‘하’ 세 가지로 분류했으며 대표본 위원회의 메드허스트는 ‘엔틱체’, ‘클래식체’, ‘소설체’, ‘대화체’로 분류하였다. 화합본 역시 ‘문어체’, ‘쉬운 문어체’, ‘관화체’ 세 가지의 문체로 구성된다. 이는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문체 인식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에 해당한다. 일례로 선교사 Thomas Taylor Meadows(1815~1868)도 중국어의 문체를 분류한 바 있으며 그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²⁰⁾ ‘고전 문체(Ancient style)’, ‘사무 문체(Business style)’, ‘문학 문체(Literature style)’, ‘일반적 문체(familiar style)’, ‘구어체(colloquial style)’와 같다. ‘고전 문체’는 사서와 같은 고대 경전, ‘일반적 문체’는 소설, 연극과 같은 가벼운 작품의 문체, 그리고 ‘사무적 문체’는 일반적인 편지, 공문서에 사용되는 문체를 일컫는다.

서양 선교사들의 문체분류는 특히 문어체를 두 단계로 세분하거나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 특정 문체를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즉 모리슨의 중, 대표본 위원회의 클래식체, 메도우스의 사무체, 그리고 화합본의 쉬운 문어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전에 사용된 문어체보다는 쉽고 구어체

19) Jost Oliver Zetzsche(1999:194)

20) Thomas Taylor Meadows(1847:13-18)

소설류나 문학적인 글, 구어체와 달리 보다 격식 있는 문체로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 위치한다. 선교사들은 이 문체를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문체로 간주했으며 메도우스는 사무적 문체가 선교사들이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문체라 여겼다.

〈표〉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문체 분류

| 모리슨 | 대표본 위원회 | 메도우스 | 화합본 위원회 |
|-----|---------|------|---------|
| 상 | 엔틱체 | 고전체 | 문어체 |
| 중 | 클래식체 | 사무체 | 쉬운 문어체 |
| 하 | 자유 문체 | 문학체 | 관화체 |
| | 대화체 | 일반체 | |
| | | 구어체 | |

선교사들은 언문이 불일치했던 중국의 상황에서 성서 번역서에 채택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문체를 세분하였다. 다만 각 문체 분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와 같이 분류된 문체가 실제 어떠한 문체를 가리키며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모리슨의 ‘상’의 경우 사서오경, ‘하’의 경우 《삼국연의》와 같은 소설을 예로 언급했지만 ‘중’의 문체로는 그 예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의 문체가 ‘상’, ‘하’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세분화된 문체 구분과 반대로 선교사들은 각각의 번역서가 중국의 지성인과 문맹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성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 혹은 포부를 안고 있었다. 예로 《문어체 화합본》을 번역한 웨리는 이는 교양이 있거나 교양이 없는 모든 중국인, 즉 지성인과 문맹의 하층민에게 동일하게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²¹⁾한 것과 같다. 중국의 문어체와 구어체 가운데 하나의 문체를 선택하는 경우 특정 계층이 선교 대상에서 배제될 수

21) Jost Oliver Zetzsche(1999:252) 참조.

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과 보편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번역서를 출간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이상이 괴리를 보인다.

2. 쉬운 문어체의 출현과 쇠퇴

선교사들은 중국어의 문체를 세분했으며 특히 문어체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거나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 특정 문체를 설정하였다. ‘중’의 문체, ‘클래식체’, ‘사무적 문체’ 등은 그 명칭이 상이하지만 고대의 경전과 다르며 문학적 글이나 구어체와도 구분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는 바로 19세기 후반 무렵 성경 번역사에 출현한 ‘쉬운 문어체’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1쉬운 문어체란, ‘淺文理’, ‘easy wenli’, ‘easy classics’, ‘low wenli’, ‘Chinese literary language plain style’으로 명명되며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체이다.²²⁾ 이는 문어체보다는 읽기 쉽고 구어체보다는 격식을 갖춘 문체를 일컫는다. 우선 쉬운 문어체가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과정에 출현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성경번역은 문어체 위주였다. 특히 《대표본》은 문어체의 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번역서는 문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문맹의 일반 평민은 이를 읽을 수도 듣고 이해할 수 없기에 이상적 번역서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성경 번역서를 출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으며 쉬운 문어체와 구어체 성경이 출현하게 된다. 남경관화, 북경관화 번역서가 출현했지만 당시 표준어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언어의 번역서가 중국 전역에 통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선교사들은 《대표본》과 같이 고전적 문체와 구어체 버전의 중간에 위치하는 언어 스타일로, 방언 차이에 크게

22) 본고에서는 쉬운 문어체를 개신교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문체로 간주하였다. 尹延安(2013:71) 역시 쉬운 문어체를 개신교 선교사들이 번역과정에 형성한 특수한 언어 형식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이 이와 같은 개념, 용어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구애받지 않는 쉬운 문어체를 고안하기에 이른다.

이에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보다는 읽기 쉽고 구어체보다는 격식을 갖추어 문인들도 읽을 수 있으며 방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되며 선교사들에게 기대를 받았다.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쉬운 문어체로의 성경 번역서가 본격적으로 출간된다.²³⁾ 예로 그리피스는 1884년 《新約四福音》을 출간했으며 해당 책의 표지에는 자필로 ‘easy wenli’라 명시하였다.²⁴⁾ 버든은 블로드젯과 함께 1889년에 신약성서를 출간하였다. 웨레웨브스키는 1898에 《新約全書》, 《新約聖經天主版》을 출간했으며 이는 ‘淺文理’, ‘Plain wenli’임을 표지에 명시하였다. 이어서 1902년에 ‘Plain style’로 《新舊約全書》를 출판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화합본에서도 쉬운 문어체 번역본이 계획되었다. 쉬운 문어체는 기타 두 가지 화합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판본으로 기대를 받으며 그 신약은 세 가지 문체의 번역서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었다.

하지만 쉬운 문어체는 출현과 함께 기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성경 번역의 역사상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쇠퇴한다. 일례로 《쉬운 문어체 화합본》의 구약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신약은 가장 먼저 완성되었지만 구약은 결국 완역되지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화합본은 문어체와 관화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쉬운 문어체로의 성경 번역은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이처럼 쉬운 문어체가 이상적인 문체로 간주되었으나 실제 성경 번역사에서 잠시 출현하였다가 쇠퇴하고, 중국 사회에 널리 수용되지 못한 것은 쉬운 문어체란 무엇인가, 이는 어떠한 언어적 특징을 지니는가에 대한 선교사들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23) 현재 쉬운 문어체로 불리는 번역서의 일부는 후대의 평가에 의한 것도 있다. 예로 모리슨본은 현재 문어체, 혹은 쉬운 문어체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당시 번역자들이 쉬운 문어체라 명시하거나 해당 문체를 인식하고 이와 같이 번역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Elisabeth Kaske(2008:51) 역시 쉬운 문어체가 출현한 시기를 1870년대 무렵으로 추정하였다.

24) 또한 본서에는 John Archibald의 편지가 서문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 편지에서 그리피스와 그의 번역 문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쉬운 문어체는 당시 중국인들에 의해서 사용된 특정 문체가 아닌 서양인들이 이상적으로 간주한, 그들이 문어와 구어체 사이에 설정한 문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각 번역자마다 쉬운 문어체라고 여기는 문체가 달랐다. 아래는 각각 쉬운 문어체로 성경을 번역했던 버든, 쉘레쉴브스키, 김슨이 쉬운 문어체에 대해 그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다.

- (1) “사실상 관화와 같다. 대사와 허사의 생략이다.”²⁵⁾
- (2) “즉시 필요한 것은 문어체 번역본의 현대적 형식이다.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고전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 없고 이미 만들어진 어구, 시와 수사적 작문에서 발췌한 표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즉 이는 중국인들의 중요한 일이나 진지한 교류에 사용되는 문체이다.”²⁶⁾
- (3) “쉬운 문어체, 문어체 버전이 기획된 이래로 언어가 변화했으며 전체 교육 제도의 변화와 함께 신문, 잡지에 사용되는 문체가 변화하고 있다. 쉬운 문어체가 현재의 언어가 되고 있다.”²⁷⁾

(1)에서 버든은 쉬운 문어체는 관화와 유사한 문체라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선교사는 쉬운 문어체는 관화체가 매우 간단한 형식의 문어체로 새롭게 발행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화합본의 출간 당시에는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를 간단하게 한 것이며 이는 만다린과는 상이한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쉬운 문어체와 문어체의 연관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를 구어체와 구분한 것이다. 한편, (2), (3)에서는 쉘레쉴브스키와 김슨이 쉬운 문어체를 문어체와의 연관성 상에서 논의하면서 언어의 통시성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특징이다. (2)에서 쉘레쉴브스키는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의 현대적 형식으로 이는 학자들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과거 표현을

25) Jost Oliver Zetzsche(1999:162) 재인용.

26) Jost Oliver Zetzsche(1999:162) 재인용.

27) *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 Records* (1907:271)

고집하는 문체가 아닌 현재 중국인들이 실제 교류에 사용되는 문체임을 강조하였다. (3)에서 김슨은 언어는 변화하며 쉬운 문어체와 문어체 가운데 쉬운 문어체가 점차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될 것이라 간주하였다.

이처럼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중간적 성격을 띠며 양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문체로 간주되었다. 다만 쉬운 문어체는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양극에 놓여 있는 문어체, 구어체의 특징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즉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도, 구어체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는 선교사들이 쉬운 문어체의 언어적 특징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즉 쉬운 문어체의 어휘, 문법적 특징에 대한 번역자들의 견해는 차이를 보이며 역시 문어체, 구어체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로 쉘레체브스키는 쉬운 문어체에서는 고전적인 표현 특히 이미 만들어진 어구, 시와 수사적 작문에서 발췌한 표현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쉬운 문어체 화합본》의 번역에 참여했던 그레이브즈는 오히려 관화에 포함된 단어의 사용은 피하고 보편적인 고전적 문자, 간단한 고전 속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한편 이음절어의 사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⁸⁾ 이처럼 선교사들은 쉬운 문어체란 무엇이며 해당 문체의 언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의 폭이 컸다. 따라서 쉬운 문어체는 혹은 구어체, 혹은 문어체에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이는 쉬운 문어체의 개념 정립이 불완전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쉬운 문어체, 문어체, 구어체의 실제 번역서를 통해 쉬운 문어체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로 그리피스스의 경우, 1884년 쉬운 문어체, 1886년 문리체, 그리고 1887년 관화체 성경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유사한 시기에 문체를 달리하여 출간된 번역서들의 어휘, 문법적 특징을 비교, 분석한 예는 다음과 같다.²⁹⁾

28) Jost Oliver Zetzsche(1999:235)

29) 필자는 그리피스스의 세 가지 문체의 성경 번역서의 마태오 복음서의 일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어 성경의 원문 출처는 珍本聖經數位典藏查詢系統(<http://bible.fhl.net/ob/>)이다. 문어체와 쉬운 문어체가 상이한 경우는 굵은 글씨, 쉬

(1) 쉬운 문어체

當希律王時耶穌既生於猶太之伯利恒，有博士數人，從東方至耶路撒冷曰，生而為猶太人之王者何在，因我等在東方見其星，故來拜之，希律王聞此則懼，耶路撒冷全城之人亦皆懼，希律乃召祭司諸長與民間士子問之曰，基督當生於何處，衆曰，猶太之伯利恒，因昔先知記曰，猶太地伯利恒乎，在猶太郡邑之中，爾非最微者，因將有君從爾出，以牧我以色列民矣。³⁰⁾

(2) 문어체

當希律王時耶穌既生於猶太之伯利恒，有博士數人，自東方至耶路撒冷曰，生而為猶太人之王者何在，因我等在東方見其星，故來拜之，希律王聞此則懼，耶路撒冷全城之人亦皆懼，希律乃召祭司諸長與民間士子問之曰，基督當生於何處，衆曰，猶太之伯利恒，蓋昔先知記曰，猶太地伯利恒乎，在猶太郡邑之中，爾非最微者，因將有君從爾出，以牧我以色列民矣。³¹⁾

(3) 관화체

當希律王的時候耶穌生在猶太的伯利恒，有几位博士，從東方到耶路撒冷來說，那？生為猶太人王的在那裏，我們在東方看見他的星，所以來拜他，希律王聽見這話就懼怕，耶路撒冷全城的人都懼怕，希律就召衆祭司諸長和民間的讀書人來，問他們說，基督應當生在於何處，他們回答說，在猶太的伯利恒，因為有先知記的話說，猶太地伯利恒啊，你在猶太府縣中間，不是最小的，因為將來有一位王從你那裏出來，牧養我以色列的百姓。³²⁾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³³⁾

은 문어체와 관화체가 상이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30) Griffith 역(1884)

31) Griffith 역(1886)

32) Griffith 역(1887)

(1)의 쉬운 문어체는 (2)의 문어체의 ‘自’를 ‘從’으로, ‘蓋’를 ‘因’으로 일부 어휘를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반면 (3)의 관화체의 경우 쉬운 문어체와 상이한 언어적 특징을 보인다. 예로 양사 ‘位’, 복수 표시 ‘們’, 방향보어 ‘出來’ 사용, ‘之’를 ‘的’으로 대체, ‘懼’, ‘牧’, ‘因’과 같은 일음절어 대신 ‘懼怕’, ‘牧養’ ‘因爲’의 이음절어를 사용한 것과 같다. 그 밖에도 대명사 ‘他’, ‘你’, 개사 ‘在’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쉬운 문어체와 문어체는 유사하며 반면 구어체와는 상이한 어법적, 어휘적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쉘레체브스키의 쉬운 문어체 성경에서도 나타난다. 1898년에 천문리체 성경과 1909년 관화체, 1927년 문리체 성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역시 천문리체와 문리체가 거의 일치하며 관화체와는 상이하다. 이는 화합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쉬운 문어체가 구약까지 완역되지 못한 원인과도 같다. 즉 쉬운 문어체의 번역은 문어체와 구별되지 않았으며 결국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와 통합되었다.

쉬운 문어체는 중국에서 성경을 보편적으로 통용시키기에 적합한 문체로 간주되며 중국어 성경 번역 역사상에서 잠시 유행하였다. 하지만 쉬운 문어체로의 번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쉬운 문어체란 어떠한 문체인지 그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서 그 지위를 정립하지 못 하였다. 결국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성경 번역사에서 쇠퇴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쉬운 문어체로 성경을 번역했던 대표적 인물 그리피스, 쉘레체브스키의 경우 문어체, 쉬운 문어체, 구어체로의 번역을 기획, 실천했으며 따라서 구어체가 무엇인지, 구어체의 표현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쉬운 문어체를 작성할 시에 문어체에 가깝게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쉬운 문어체란 무엇인가, 어떠한가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문어체를 보다 지향하였다.

33) 《성경 신약》 마태오 복음서 2장, 1-6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 과정에서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서 어떠한 문체를 채택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으며 이들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쉬운 문어체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서 어떠한 문체를 채택할 것인가의 고민은 쉬운 문어체라는 틀 안에서 이를 정의하고 그 문체의 언어적 특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3. 구어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화체 번역서의 지위 확립.

중국에서는 글을 구어체로 쓰는 것에 대한 경시 현상이 팽배했으며 이는 백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의 구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 선교사들이 작업한 성경 번역은 대개 문어체 중심이었으며 이러한 문어체는 중국의 문인을 비롯한 상위 계층만 읽을 수 있으며 하층민은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선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하층민들이 접할 수 있는 구어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중국인들의 구어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성경이 구어체로 번역될 경우 그들에게 경시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예로 모리슨은 구어체로의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³⁴⁾ 그는 문체를 ‘상’, ‘중’, ‘하’로 분류하고 성경을 ‘중’의 문체로 번역하고자 했으나 《聖諭》³⁵⁾를 본보기로 삼아 구어체로 번역할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그는 ‘하’의 문체, 즉 구어체의 장점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되고, 청중들이 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문구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결국 모리슨이 ‘하’의

34) 모리슨본은 현재 쉬운 문어체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는 구어체를 중시하고 이를 지향했던 점이 그의 번역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5) 《聖諭廣訓》으로 중국 청나라의 옹정제(雍正帝)가 민중 교화를 위해서 포고한 교훈으로 만언론(萬言論)이라고도 한다. 강희제(康熙帝)의 ‘聖諭 16조’를 재해석한 것으로 구어체로 저술된 점이 특징이다. 선교사들은 이 텍스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번역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문체가 아닌 ‘중’의 문체를 선택하기까지는 중국인들의 구어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모리슨은 중국인들은 구어체로 지어진 소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스스로도 구어체는 다소 거칠다고 여겼다.

대표본 위원회 역시 구어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중국의 지성인들은 소설체로 글을 짓지 않으며 이로 작성된 글을 읽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대화체 역시 《聖諭》에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윤리적, 도덕적 특성을 지닌 다른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로써 성경을 번역한다면 성경의 존엄을 훼손하며 번역 작업의 명성을 손상시킬 것이라 여겼다.

관화, 쉬운 문어체로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들 역시 중국인들의 구어체 경시 현상을 염려하였다. 예로 그리피스는 “관화,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 쉽다고 해서 절대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³⁶⁾고 강조한 것과 같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구어체에 대한 경시 풍조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은 구어체 성경이 중국인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염려했으며 이는 구어체 성경 출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중국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일찍이 몽골어, 만주어, 샤먼어(夏門語), 푸저우어(福州語), 상하이어(上海語), 광저우어(廣州語), Ning보어어(宁波) 등 각 지역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는 구어체 성경으로 하층민들이 접하기에 용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중국 전역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선교사들은 중국 전역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성경 번역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통어(Lingua franca)로서의 관화에 주목한다. 최초로 남경관화역본이 1857년 출간되었으며 이는 《대표본》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메드허스트, 스트로

36) Griffith 역(1886) 서문 참조.

나호가 《대표본》에 기반하여 남경 관화로 번역한 것이다. 메드허스트의 경우 본래 구어체 성경을 계획하면서 상하이 방언으로 번역하려고 계획했으나 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남경관화로 이를 번역하였다.³⁷⁾

그리고 점차 북경 관화가 주목을 받게 된다. 예로 베이징에서 활동했던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1827~1916)는 관화는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현재 새롭게 출판되는 대부분의 책도 관화로 저술된다고 밝혔다.³⁸⁾ 따라서 성경은 응당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관화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⁹⁾ 일부 선교사들은 북경어가 표준어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 추측, 확신하였다. 예로 《관화 화합본》 번역에 참여했던 굿리치는 “만다린은 중국에서 보편 언어가 될 것인가? 나는 예언할 수 없지만 종종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Alexander Williamson(1829~1890)은 보다 확고하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I think we should push the Mandarin. These different dialects must sooner or later fall under a uniform language. The only one which has any probability of surviving is the Mandarin. We should strive to push this Mandarin over the southern dialects that there may be ultimately only one spoken language.”

“나는 만다린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이한 방언들은 언젠가 고정된 언어로 정착될 것이다. 생존할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만다린이다. 우리는 만다린을 남쪽 방언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추구해야 하며 결국 하나의 구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⁴⁰⁾

그는 북경 관화가 중국의 표준어로 기능할 것이며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도 이를 사용하게끔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교사들이 표준어로

37) Jost Oliver Zetzsche(1999:141) 참조.

38)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1881:41)

39) Jost Oliver Zetzsche(1999:131) 참조.

40) Jost Oliver Zetzsche(1999:141) 재인용.

서 관화를 추구한 점은 그들이 번역한 여러 서적, 성경 등을 통해 실제 중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의 구어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하여 구어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인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문맹의 하층민에게 들려줄 수 있는 구어체 성경 번역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통어로서의 북경관화에 주목하고 이를 성경 번역의 주요 문체로 삼았다. 한편, 관화체가 성경 번역의 문체로 우위를 점하게 되기까지는 중국인들의 수용 양상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화합본의 문어체, 관화체 성경의 출간 후, 관화체 성경이 보다 널리 읽혔으며 이는 이후 성경 번역서의 문체에 영향을 미쳤다.

IV. 결론

본 논문은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서의 문체 변화를 통해 당시 중국 사회의 언문불일치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해와 이러한 언어적 환경에 적합한 성경 번역서를 출간하기 위한 그들의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모리슨본, 《대표본》과 같은 문어체 번역서 이후 보다 쉽게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주목 받았던 쉬운 문어체의 번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선교사들은 문인과 평민을 아우를 수 있는 성경 번역을 지향하였으며 그에 적합한 문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문체를 세분하여 중국의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 문어체보다는 쉽고 구어체보다는 격식을 갖춘 하나의 문체를 설정하였다. 이는 쉬운 문어체라 불리며 19세기 후반, 중국어 성경 번역의 이상적 문체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쉬운 문어체란 어떠한 문체인가에 대한 선교사들 사이의 견해차가 컸고 실제 이로써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를 문어체와 차별화하는 것에 실패한다. 결국 쉬운 문어체는 문어체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쇠퇴하며 성경 번역

사에서 사라진다.

본고에서는 쉬운 문어체 성경과 문어체, 관화체 성경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교사들이 문어체와 구어체의 어휘, 문법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쉬운 문어체에서 구어체 표현보다는 문어체를 지향하였음을 밝혔다. 선교사들이 쉬운 문어체에서 문어체보다는 쉬운 문체를 추구하면서도 구어체 표현을 적극 사용하지 못한 것은 중국인들의 구어에 대한 경시 현상의 영향으로 그들은 성경이 구어체로 번역되어 중국인들에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염려하였다. 이후 선교사들 역시 중국의 공통어(Lingua franca)로써의 관화에 주목하며 구어체가 중국어 성경 번역의 주요 문체로 자리 잡는다.

이처럼 성경 번역사에서 쉬운 문어체의 출현과 쇠퇴는 언문이 불일치했던 당시 중국에서 문인들과 평민들에게 모두 수용될 수 있는 성경을 출간하고자 하였던 선교사들의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중국어 성경 번역의 초기부터 중심이 되었던 문어체 성경에서 구어체 성경으로 그 문체가 변화하는 과정의 일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ferences>

1. 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 *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 records*. Shanghai,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7.
2. Elisabeth Kaske. *The Politics of Language in Chinese Education: 1895 ~1919*. BRILL, 2008.
3. Hwang, JiYeon. "An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Bible's Chinese translation and modern Mandarin in Modern tim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Vol.14 No.4, 2013.09.

4. Hwang, JiYeon. "The literary style of Chinese Protestant Bible Translation".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38, 2013.
5. Jost Oliver Zetzsche. *The Bible in China: The History of the Union Version Or the Culmination of Protestant Missionary Bible Translation in China*. Monumenta Serica Institute, 1999.
6. Li, SuYeon. *Study on the Chinese Bible Transl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octoral thesis. 2013.
7. Ma HongLi.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t Translation Strategies Expressed in the Mandarin Union Version and Wenli Union Versio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Comparative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master thesis, 2011.
8. Martin, William Alexander Parsons. *The Chinese : their Education, Philosophy, and Letters(Shanghai and London, 1880; new ed., New York, 1881)*.
9. Shi XiaoYan. <Bible's Chinese Translation and Language Renov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Early Republic>, *Nanjing Shifandaxue Wenxueyuan xuebao* 4, (2015).
10. Song GangHo. *Chinese bible and history of translation*. Morison, 1998.
11. Thor Strandenaes.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Mt 5:1-12 and Col 1*.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87.
12. Thomas Taylor Meadows. *Desultory notes on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china, and of the chinese language*. London: W. M. H. Allen and Co., 1847.
13. William Milne. *A retrospect of the first ten years of the Protestant Mission to China(now, in connection with the Malay, denominated,*

the Ultra-Ganges Missions: Accompanied with Miscellaneous Remarks on the Literature, History, and Mythology of China &c), Anglo-Chinese Press, 2013.

14. Walter Henry Medhurst. *Reply to Dr. Boone's vindication of comments on the translation of Ephes. I : in the delegates'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by the committee of delegates, also, a letter on the same subject, from J. Legge, to Dr. Tidman, secretary of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Malacca: Printed at the Anglo-Chinese Press, 1820.
15. Yin YanAn. *Chinese Language Changes and Influences of Missionaries Chinese Translations*.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Press, 2013.

< 참고문헌 >

1. 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 *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 records*. Shanghai,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7.
2. Elisabeth Kaske. *The Politics of Language in Chinese Education: 1895 ~1919*. BRILL, 2008.
3. 황지연, <중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 개신교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38권, 2012.
4. 황지연, <중국 근대 성경번역과 백화문의 맥락적 이해 -『和合本』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3.09.
5. Jost Oliver Zetzsche. *The Bible in China: The History of the Union Version Or the Culmination of Protestant Missionary Bible Translation in China*. Monumenta Serica Institute, 1999.
6. 이수연, 《聖經中譯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7. 马红莉, 《《官话和合译本》与《文理和合译本》的翻译策略比较》, 华东师范大学, 中国语言文学系 硕士论文, 2011
8. Martin, William Alexander Parsons. *The Chinese : their Education, Philosophy, and Letters(Shanghai and London, 1880; new ed., New York, 1881).*
9. 石晓岩, 〈圣经汉译与清末民初语言文字变革〉, 《南京师范大学文学院学报》4, 2015.
10.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도서출판 모리슨, 1998.
11. Thor Strandenaes.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Mt 5:1-12 and Col 1.*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87.
12. Thomas Taylor Meadows. *Desultory notes on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china, and of the chinese language.* London: W. M. H. Allen and Co., 1847.
13. William Milne. *A retrospect of the first ten years of the Protestant Mission to China(now, in connection with the Malay, denominated, the Ultra-Ganges Missions: Accompanied with Miscellaneous Remarks on the Literature, History, and Mythology of China &c),* Anglo-Chinese Press, 2013.
14. Walter Henry Medhurst. *Reply to Dr. Boone's vindication of comments on the translation of Ephes. I : in the delegates'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by the committee of delegates, also, a letter on the same subject, from J. Legge, to Dr. Tidman, secretary of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Malacca: Printed at the Anglo-Chinese Press, 1820.
15. 尹延安, 《传教士中文报刊译述中的汉语变迁及影响》,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3.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ry style of Chinese translated Bible by Western missionaries, and aims to study the missionaries' understanding of the discordance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of the then Chinese society. Bible translation was a crucial duty for missionaries and in order for the Bible to be read and accepted by the Chinese people, comprehending the linguistic situation and background of China of the times was required, in addition to grasping the Chinese language itself. Thus, the translated Bible is valuable not only for understanding missionaries' awareness toward the Chinese language, but also for realizing the linguistic reality of modern China.

The literary styles of the Chinese translated Bibles have changed dramatically through time. The Morrison version, Marshman version, and Delegate version, which were the first complete translated Chinese versions, were all in classic styles. Since then, the Nanjing, Mandarin, and easy classic style versions appeared, under the intention of translating an easy-to-read Bible. In the case of the Union Version, the shift of such literary styles was planned into three types: classic style, easy classic style, and Mandarin style. Such change in literary styles reflects one aspect of the missionaries' efforts to spread the Bible to both the literati and the commoners in China, during the era of discordance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Missionaries tend to have subdivided the Chinese literary styles, rather than dichotomizing it into written and colloquial language. Division of written styles was made into several stages, or a specific literary style was established in-between written and colloquial style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easy classic style that

appeared in Chinese translated Bibles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The easy classic style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missionaries due to its accessibility by the commoners for its easiness compared to the classic style, and since it was regarded as an element that can complement the weakness of dialectal differences and the vulgarity of the colloquial style. However, standing in the middle of written and colloquial literary styles, the easy classic style failed to distinguish itself from the normal classic style, and thus eventually declined due to its resemblance to the classic style. Meanwhile, missionaries were burdened with translating the Bible into colloquial style, since there existed a phenomenon where Chinese people belittled colloquialism. Nevertheless, as they gradually focused more to the Mandarin Chinese as China's lingua franca, colloquialism steadily settled in as the main literary style of Chinese translation of Bibles.

Key Words : 중국어 성경 번역(Chinese bible translation), 모리슨본
(Morrison version), 마쉬맨본(Marshman version), 대표본
(The Delegates' version), 화합본(Union Version), 쉬운 문어체
(Easy classic, Easy Wenli)